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 잠수곳의 제차(祭次)와 그 역할\*

강 소 전\*\*

〈차 례〉

- I. 들어가며
- II. 동김녕마을 잠수곳의 기본 제차(祭次)
- III. 동김녕마을 잠수곳의 제차와 그 역할
- IV. 글을 마치며

## I. 들어가며

제주에서 잠수<sup>1)</sup>들이 만들어내고 전승시켜온 수많은 유형·무형의 문화유산들은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그 중에서 잠수곳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잠수들의 무사고와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무속의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수곳을 통해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인 「제주도 잠수곳 연구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에서, 동김녕마을 잠수곳의 제차와 그 역할 부분만을 따로 발췌, 요약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1) 제주바다에서 아무런 도구 없이 나잠어업을 행하던 이들은 그간 '잠녀(잠녀, 잠녀), 잠수(잠수), 해녀'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 왔다. 이 글에서는 제주에서 원래적으로 쓰였던 잠녀와 잠수 중에서 잠수라는 표현을 가지고 서술하였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잠수들 중 노년층은 해녀라는 말보다 잠녀와 잠수라는 표현을 본래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동김녕의 잠수들도 스스로를 보통 잠녀·잠수로, 자신들의 곳을 흔히 잠녀곳·잠수곳으로 부르기에 이 글에서도 그들의 고유한 풍속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다. 다만 이 글에서 잠녀와 잠수 중에 굳이 잠수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본래적인 용어를 존중하는 의미와 동시에 어촌계 내의 조직인 잠수회라는 용어와도 서로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갖기 위해 잠수라는 표현으로 단일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잠수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나타난다. 즉 잠수굿이 중요한 이유는 잠수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세계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잠수굿의 여러 모습 중에서 제차(祭次)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동시에 그 제차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잠수굿의 제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심방과 잠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차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공유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잠수굿의 총체적 연구를 위한 밑바탕이 된다.

이를 위해 북제주군 김녕리의 동김녕마을에서 행해지는 잠수굿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동김녕마을의 잠수굿은 잠수라는 단골조직과 매인심방<sup>2)</sup>이 존재하고, 굿이 연례적으로 반복·지속되고 있어 나름대로 전래적인 원형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여기서는 동김녕마을의 잠수굿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잠수굿 자체는 4년 동안 매번 관찰했으며, 특히 이 글에서는 주로 2003년과 2004년에 행해진 잠수굿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 Ⅱ.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기본 제차(祭次)

### 1. 제차의 구성

동김녕 잠수굿은 하루 종일에 걸쳐 치러진다. 새벽부터 제물을 진설하고 큰대를 세우고 삼석울림부터 시작해서 굿의 마지막인 도진을 하면 저녁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잠수굿의 제차는 굿의 내용상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초감제, 요왕맞이, 지드림, 씨드림—씨점, 액막이, 배방선 등이다. 그런데 이들 중심적인 제차들은 그 내부에 다양한 제차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선후로 이어지는 제차들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2) 현재 김녕에서 활동하는 매인심방은 2명으로, 그 중 잠수굿을 맡는 심방은 문순실(45세)이다. 문순실 심방은 가족내력으로 인해 최근 성(姓)이 서(徐) 씨로 바뀌었으나, 그동안 문심방으로 불렸던 사정 등을 감안해 이 글에서는 문순실 심방이라고 그대로 호칭하고자 한다.

동김녕 잠수굿의 기본 제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삼석올림]

[초감제] : 베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열명—연유닭음—제청신도업—군문열림  
—분부사림—새드림—젯드리 얹혀 살려음

[추물공연]

[요왕세경본풀이]

[요왕맞이] : <초감제> : 베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열명—연유닭음—제청신  
도업—선왕의 이야기(도깨비영감)—군문열림(군문돌아  
봄)—분부사림—새드림—도래둘러땀(상촉권상-도래둘  
러땀-젯복제맞이굿)—오리정신청괘—서우젯소리—본  
향뿔(소지사름 포함)—오리정 정데우 마무리

<요왕질침>

[지드림]

[씨드림 — 씨집]

[서우젯소리]

[액막이] : <요왕차사본풀이>, <각산받음> 포함

[선왕풀이—배방선]

[도진]

3) 제차 분석은 지난 2003년에 벌어진 굿을 대상으로 한다. 서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글은 2003년과 2004년에 벌어진 굿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03년의 굿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기존 굿당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진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기도 하다. 동김녕의 잠수굿은 매년 진행이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각 해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04년의 경우 새로 굿당을 신축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차의 진행 과정에 '강태공수목수'와 '문진본풀이'라는 제차가 덧붙여 끼여 들어가기도 했다.

한편 현용준은 동김녕 잠수굿의 제차를 크게 초감제—요왕맞이—요왕세경본풀이—요왕채소본풀이—씨집·씨드림—즈손들 산받음—배방송으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다(현용준, 『濟州의 漁民 信仰』,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1, 165~167쪽. 이 논문은 『濟州道 水協史(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1986)』에 실린 것을 재수록한 것임). 기본적으로 당시의 잠수굿이나 현재의 잠수굿은 거의 동일한 제차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용준의 보고와 비교해보면 일부 제차의 순서가 현재와는 조금 다른 면이 발견되기도 한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이나 굿 진행에 따른 시간의 적절한 안배, 수심방과 소미(小巫) 사이의 교대 등 여러 가지 사정이 해당 상황에 따라 제차의 일부 순서에서 다소 선후가 바뀌어 행해질 수 있다. 한편 동김녕 잠수굿의 메인심방인 문순실은 1980년대 초 자신이 굿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 글에서 밝힌 제차구성을 그대로 현재까지 변화 없이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2. 제차의 의미와 진행

동김녕 잠수굿을 크게 구분하라면 한마디로 오전의 초감제와 오후의 요왕맛이로 나눌 수 있다. 그만큼 초감제와 요왕맛이를 중심으로 굿이 전개되고 있다. 그럼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주요 제차들의 의미와 진행과정을 간단히 알아보자.

### 1) 초감제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굿은 초감제부터 시작하게 된다. 초감제는 기본형식의례(基本形式儀禮)이자 종합청신례(綜合請神儀禮)이다.<sup>4)</sup> 초감제는 일정한 순서로 세부제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김녕 잠수굿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앞서 밝힌 것처럼 <베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열명—연유담음—제청신도업—군문열림—분부사뵐—새드림—젯드리 얹혀 살려옴>의 순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심방이 굿을 시작하면 천지자연과 각종 인문사항의 발생을 노래하고(베포 도업침), 굿을 하는 장소와 시간을 말하면(날과 국 섬김), 이어서 누가 굿을 하여 축원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열명). 그리고 이 굿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하게 되고(연유담음), 그러므로 어찌어찌한 신들이 제청에 내려오기를 청한다(제청신도업). 그런 후 신들이 내려오려고 하면 신역(神域)의 문을 열어야 하므로 격렬한 도랑춤과 함께 문을 여는 모습을 보이고(군문열림), 문이 열렸는지 그 결과를 점쳐 확인되면 신의 뜻을 전달한다(분부사뵐). 한편 문이 열려 신들이 내려 오고자 하는 길의 모든 부정을 없애기 위해 새(狴)를 쫓는다(새드림). 그리고 다시 제(祭)의 순서와 신의 위계에 맞게 신들을 청해 제장으로 좌정시킨다(젯드리 얹혀 살려옴).

### 2) 요왕맛이

요왕맛이는 바다를 관장하는 요왕(용왕, 龍王)을 맞아들여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하는 제차이다. 오후에 진행되는 중요한 제차로, 크게 구분하면 요왕맛이 자체의 <초감제>와 <요왕질침>으로 나눌 수 있다. 초감제는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데, 다만 오전보다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베포 도업침—날과 국 섬김—열명—연유담음—제청신도업—선왕의 이야기(도깨비영감)—군문열림(군문돌아

4)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262~265쪽.

봄)—분부사뵐—새드림—도래둘러멤(상축권상-도래둘러멤-젯북제맞이굿)—오리정  
신청궤—서우젯소리—본향뵐(소지사뵐 포함)—오리정 정대우 마무리)의 순서를 가  
진다.

여기서 <도래둘러멤<sup>5)</sup>>이 추가되고, 신을 청해 들이는 <오리정신청궤>가 강화되  
며 제주도 민요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우젯소리>가 행해진다. 또한 김녕의  
성세깃당신을 모셔들이는 <본향뵐>이 이루어진다. <본향뵐>은 잠수굿이 성세깃당신  
과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제차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전의 초감제에 나왔  
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열명>이나 <연유뵐>, <분부사뵐>이 행해지는 것도 중  
요한 사항이다.

요왕맞이의 초감제가 끝나면 곧바로 <요왕질침>이 시작되는데, 이 <요왕질침>은  
신이 오고 가는 길의 부정을 치우고자 하는 질치는 장면과 그 이후에 요왕문을 열려  
맞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푸른 가지가 달린 대나무를 양쪽으로 8개씩 꽂아 두고  
벌이는 질치는 장면 역시 대단히 볼거리가 많은 흥미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왕문을 열려 맞을 때에는 대표 잠수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하나의 문이 열릴  
때마다 기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잠수굿의 오후에 진행되는 요왕맞이는 잠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요왕맞  
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잠수들은 별도로 개인적인 요왕맞이를 각자 하기 때문이다.

### 3) 지드림

요왕맞이가 끝나면 제상에 있던 제물을 조금씩 뜯어 모아 '지'를 썬다. '지'는 흰 한  
지에 제물을 조금씩 썬는 것을 말하는데, 잠수들이라면 평소에도 하는 기원행위의  
일종이다. 지는 용왕신과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제물을 대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는 잠수회 전체를 위한 '도지'와 각자의 '개인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를 드릴 때는 심방이 대양을 들고 같이 가서 간단하게 축원의 말을 해 준다. 도지  
는 전체를 위한 것으로 아무나 썬는 것이 아니라 잠수대표들이 썬서 던진다. 그 외  
에 각각의 개인은 알아서 조그맣게 지를 썬서 바다에 가서 던진다.

### 4) 씨드림 — 씨점

---

5) <도래둘러멤>이란 새드림 후 신청궤를 하기 전에 심방이 돌래떡을 넣은 채롱을 들고 춤추다가 각  
종 악기(樂器)에 그 떡을 하나씩 나누어 넣는 행사를 한다. 각종 악기의 신에게 고사 지내어 악기  
가 잘 울리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868쪽.

지드림 후에는 씨드림이 시작된다. 동김녕의 잠수들 중에 2인이 선정되어 바닷가를 한바퀴 돌며 좁씨를 뿌린다. 좁씨는 해산물의 씨로 관념되며 곧 해산물이 골고루 잘 자라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씨 뿌리고 난 후 심방은 돛자리 위에다가 남은 좁씨로 점을 친다.

#### 5) 액막이

액막이는 굿의 후반부에 시작된다. 나쁜 액을 막고 일년 내내 무사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제차이다. 잠수회 전체를 위한 <도액막음>, 일년 운수가 좋지 않다고 판단된 개별 잠수들의 <액막음>과 <각산받음>이 있다. 그리고 이들 액막음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요왕차사본풀이>가 불러지게 된다.

요왕차사본풀이는 심방이 앉아서 장구를 치며 부르는데 그 내용은 일반적인 차사본풀이와 같으며, 해상에서의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해서 한다. 다만 차사의 성격을 용왕에 관련된 요왕차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본풀이를 하고 난 후 심방은 도액을 먼저 막고, 이어서 잠수들 각자가 준비해 온 액막이용 물건(열명지, 지전, 폐백, 제비쌀 등)을 앞에 두고 액을 막음과 동시에 쌀을 이용해 점을 쳐 준다.

#### 6) 선왕풀이 — 배방선

액막이가 끝나면 단골들과 소미들이 제장을 정리하는 가운데, 심방이 선왕상을 마주 두고 앉아서 선왕풀이를 한다. 선왕은 도깨비 영감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 선왕에게 제물을 잘 대접하니 배의 무사고와 풍요를 일으켜주도록 기원한다. 그리고 선왕풀이 후에는 선왕상에 차렸던 제물을 모아 상자에 담고 바닷가로 나가서 멀리 띄워 보내는 배방선을 한다. 예전에는 짚배로 만들어서 했는데, 요즘은 주로 스티로폼 상자에 갖은 제물을 놓아서 한다. 동전도 몇 개 넣어서 선왕의 노잣돈을 마련한다

### Ⅲ.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제차와 그 역할

앞서 잠수굿의 제차를 알아보았는데, 동김녕에서 왜 이런 형태의 잠수굿을 오랜 시간 전승시키며 유지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즉 잠수굿의 제차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또한 잠수들은 특히 어떤 제차들을 중요시하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제차들은 어떤 제차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별로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했던 잘 보이지 않았던 제차들도 다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수들에게는 정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제차들을 중심으로 잠수굿의 준비에서부터 마무리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그 역할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첫째, 잠수들의 해상무사고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는 그만큼 물질작업이 쉬운 일이 아님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잠수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예민하게 굿에 몰입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사고라는 것은 바다에서의 해상사고가 없기를 일차적으로 비는 것이나, 이외에도 자동차사고나 집안에 재수 없는 일 등등 잠수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무사고로 확대되어 기원된다.

둘째,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잠수들은 바다 역시 육지처럼 일구며 살아가 수 있는 밭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산물의 풍요를 바라면서 하는 여러 행위들은 소위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잠수굿은 잠수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더불어 마을의 단합에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한다. 실제 동김녕에서 잠수들에게 제일(祭日)인 음력 3월 8일은 '우리(잠수)들의 날'이다. 굿을 전후해서 잠수들은 특별히 자신들을 위한 의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서로 간에 다소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해도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넘어가며, 잠수회장을 중심으로 잘 단합해서 무사히 잠수굿을 치르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동김녕에서는 잠수굿이 포제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마을 행사다. 따라서 단순히 잠수들만의 의례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크게 보면 해상무사고 기원, 해산물 풍요, 공동체의 유대강화라는 역할이 잠수굿에 녹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이를 통해서 잠수굿이 더 이상 잠수들만의 단순한 신앙활동이 아니라 그 외연이 확장되는 범위에 따라 그 층위도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이 잠수굿의 진행 제차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 1) 해상무사고 기원

### (1) 열명(列名)

열명은 예명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굿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즉 누가 굿을 하는 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굿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해지는 제

차이기도 하다. 잠수굿에서도 굿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열명을 해서 굿에 참가하는 주민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부른다. 굿당의 천정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를 쪽 써 놓은 종이를 걸어놓는다. 동김녕은 잠수들도 많고 각 기관·단체들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불러야 할 이름이 많은 편이다. 종이에는 어촌계 임원명단, 각 마을의 잠수명단, 선주명단, 각 기관이나 단체명단, 일반 참가자 등이 순서대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열명을 하는 이유는 축원을 올리는 대상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유와 더불어, 결국 잠수굿에서 기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첨가되고 있다. 그들에게는 최고의 목적이 물질작업 중에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열명이라는 절차는 당연히 해상무사고 기원의 필수요건이 된다. 그리고 이 열명은 굿의 서두 부분에서만 아니라 굿을 하는 내내 반복적으로 불러진다. 잠수들은 열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해야 굿을 한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열명이야말로 잠수굿을 주최하는 주민들이 누구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 물론 잠수들만이 아니라 부조금을 내는 사람이나 기관 모두의 이름을 올려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잠수들이 주최하고 있는 굿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다.

## (2) 새드림

새드림은 초감제 중의 한 제차로 소미가 나와서 물그릇과 감상기를 들고서 신이 내려오는 길의 모든 부정을 없애 치우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초감제의 새드림이나 요왕맞이 초감제의 새드림을 하는 과정에서 소미가 여러 잠수들을 제장의 한 가운데로 불러내어 앉혀 놓고 그들을 상대로 부정(邪)을 멀리 쫓아내는 모습을 시연한다. 본주(단골)들의 몸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정을 없애고 깨끗한 몸으로 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한편으로는 부정을 없애는 의미가 확장되어 본주의 무사고를 바라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새(邪)는 기원자에게도 달라붙어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새를 멀리 쫓아내는 행위는 곧 무사고를 기원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때 소미가 신칼로 개개 잠수들의 몸을 쓰다듬어 주는데, '신칼치마가 한번만 닿아도 소망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그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한다. 잠수들은 이 과정에서 두 손을 모으고 반복해서 잘 보살펴 달라고 기원한다.

### (3) 요왕맞이

요왕맞이는 초감제와 더불어 잠수굿의 한 축을 형성한다. 말 그대로 용왕을 맞아 들여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양쪽으로 8개<sup>6)</sup>씩 꽂아 놓은 댓가지는 요왕질을 나타내는데, 바로 그 길이 요왕이 오고 가는 길이며 그 자체가 요왕문이 되는 것이다. 물질 작업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 그야말로 요왕문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심방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기원한다.

나 주순들아 착허다 나 주순들아 고마웁다(다 막아줍서), 목 무른 사람이 물을 좇으고 (아이고 다 막아줍서) 목 무른 사람이 샘을 좇는 법이로구나(아이고 다 막아줍서). 정성 그득허다 시군문을 저승반 이상반 조상들이 내리젠 허난 처서님이 앞을 사난 조상님 네 가문공수로 고양 놀려준다 해염수다(고맙수다. 다 막아줍서). 조상님아 고맙수다. 인정을 싣끈 배가 파하는 일 없고 공 들영 놓아 두민 공든 탑 무너지는 법이 없습네다. 작년에 굿인 운을 끔게 냉겨주난 고맙수다. 쉰 다섯술(잠수회장을 말함: 조사자 주) 한 돌에 한 번씩만 백명이 넘는 지를 한 번 드리치민 열두 번을 드리치명 간장 색으명 술 색으명 구신 테우리 생인 테우리 영 허영 오늘까지 이 굿 허는딜랑 백명이 넘는 해너들 편안시켜줍서(아이고 다 막아줍서). 바당에 돈 벌영 살젠 물질 안 허는 주순들은 편안허게 살주만은 이디 예명올린 주순들은 배운 기술은 바당물질 배우난 정일월은 칼날같은 부름쌀이로구나. 이삼사월은 진진헌 해 오뉴월은 한 더위 오동짓들은 서단풍에 요즘이사 이거 고무웃도 입고 허난 허주만은 이 옷 입어도 여름은 나민 더운 짐이 무카무카 겨울은 나민 머리 실롭고 손 실롭고 발 실롭고 이 돈 벌어당 얼마나 살명 이 물질해영 백년이나 돌아오명 삽네까. 배운 기술이 이 기술이난 후루 강 물질 허민 돈 만원이라도 벌어지난 이 바당을 영업삼으곡 해영 땀경수다. 요왕님에서 죽을 목숨을 살려줍서.(2003년 동김녕 잠수굿, 요왕맞이의 군문열림 중에서, 문순실 심방)

### (4) 지드림

지는 흰 종이에 쌀(또는 밥)을 싸서 바다에 던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해 첫 물에

---

6) 요왕맞이의 댓가지는 보통 양쪽으로 8개를 꽂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곳에서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동안 조사된 자료를 살펴보면 6~11개 사이로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 점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장대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낸다(立木竿十二 迎神祭之)”는 내용이 있어 흥미롭다. 이에 대해 현용준은 “立木竿이 요왕맞이 때에 푸른 대를 세워 요왕문을 만들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기도 하다(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1, 74쪽.). 한편 요왕질의 댓가지는 푸른 잎이 달린 상태로, 처음에는 묵지 않고 놓아두기 때문에 심방이 질치는 시연을 하는 동안에는 마치 해조류가 넘실거리는 바다 속을 형상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댓가지는 요왕질치기 시연이 끝나고 요왕문을 열려 맞기 전에 서로 양쪽을 묶게 된다.

들 때나 조금 때마다 수시로 개인들이 알아서 바다에 지를 드린다. 사람에 따라서 지의 갯수가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왕지'와 '몸지'는 공통사항이고 가족 중에 물질하다가 수중고혼이 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몫의 지도 싸서 던진다.

이러한 지드림은 잠수곳에서도 나타난다. 요왕맞이 후에 지를 싸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일종의 바다라는 절대적인 세계에 자신의 정성을 보이며 바다에서 물질할 때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를 드리고 나면 바다 속에 하얀 지들이 많이 깔린 모습을 볼 수 있다. 잠수들에게 지드림은 일상화되어 있다.

#### (5) 요왕차사본풀이

차사본풀이는 죽은 이를 위로하고 저승의 좋은 곳으로 잘 가기를 바라는 무혼의례(撫魂儀禮)에서 불러지는 서사무가를 말한다. 그런데 잠수곳에서는 기원자들이 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요왕차사본풀이를 하게 된다. 요왕차사본풀이를 부르는 이유는 이미 죽은 이들은 저승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해 달라는 뜻과 함께, 바다에서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잠수들의 물질이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행해지고 잠깐 방심하거나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니까 요왕차사본풀이를 통해서 무사고를 기원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6) 액막음과 각산받음

액막음은 굿은 액을 막는 것이다. 또 산받음이란 신의 뜻을 점쳐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각각의 개인이 개별적으로 산을 받는 것을 각산받음이라고 한다. 동김녕에서는 굿 전반부에 심방이 전체적으로 산을 받아 본 후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좋지 않다는 점괘가 나오면, 잠수회장은 특별히 대상으로 지목된 잠수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나중에 액막이를 할 준비를 하게 한다. 보통은 〇세, 〇세 하는 식으로 어느 나이의 사람이 좋지 않다고 심방이 말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자들은 굿이 끝나기를 기다려 심방에게 부탁해 따로 액막이를 하고 산을 받아보는 것이다. 심방은 개인별로 어떠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일러준다.

### 2) 해산물의 풍요

### (1) 요왕세경본풀이

제주에서는 예로부터 물의 발뿐만 아니라 바다발이라 하여 바다에까지 농사의 개념을 연장시켰다. 땅에 발이 있는 만큼 바닷가나 바닷물 속에도 발은 있어, 미역이 많이 자라는 곳을 두고 '매역밭'이라고 하거나 자리돔이 많이 잡히는 곳을 '자리밭'이라고 한다. 그리고 물의 발들이 어느 한 사람 몫의 일터라면 바닷가나 바다 속에 있는 바다발들은 바다를 샅터로 살아가는 바닷가 마을 사람들 공동의 발이며, 이런 발들에는 이름이 있게 마련이다.<sup>7)</sup> 이러한 점은 제주도의 해안마을이면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다발에 풍요를 주는 신이 어떤 신인가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동김녕 잠수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원대상이 용왕이다. 잠수곳과 관계있는 성세깃당의 당신도 '요왕황제국 말жат아들'이다. 따라서 바다발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그 용왕에 속해 있는 '요왕세경신'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다.

잠수들은 바다에 용왕이 있고, 바로 이 용왕이 해산물의 풍요를 주는 것이며 더불어 바다발에서의 무사안전까지도 보장한다고 한다. 즉 잠수들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 (2) 요왕맞이

요왕맞이는 요왕신과 요왕세경신 등의 신들이 내리는 길을 치워 맞아들이고 그 신을 잘 대접하여 보내는 의미이기에,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깃들여 있다. 앞서의 해상무사고를 기원하는 의미는 물론이고 요왕과 요왕세경신이 바다발을 잘 보살펴주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 (3) 씨드림, 씨점

해산물의 풍요와 관련해 잠수곳의 후반부에 씨드림과 씨점이라는 제차가 있는데 풍요를 바라는 잠수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씨드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잠수 2명이 선정되는데,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부정을 타지 않은 자 중에서 자원하는 이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동김녕에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씨드림을 단골로 맡아 오는 잠수들이 있다. 그들은 좁쌀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심방의 서우젯소리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다같이 춤춘 후에는 심방은 대양을 들고 잠수 2인은 바구니를 든 채로 밖으로 달려 나가며 바닷가 모든 부분에 좁쌀을 뿌린다. 이

7)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131쪽.

때 일정한 양이 일정한 지역에 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다들 신경을 쓴다.

이렇게 바닷가를 한 바퀴 돌고 와서는 잠수가 남아 있는 좁씨를 가지고 심방의 말에 따라 돛자리 위에 뿌리면 심방은 점을 치게 된다. 돛자리는 씨점을 하는 그 순간 심방과 잠수들의 눈에는 동김녕의 바다로 바뀌게 된다.

에 동경국으로 세경국에 씨 뿌리러 갑니다(삼춘 뿌립서). 세경국으로 동경국드레 씨 뿌리러 갑니다. 전복씨 뿌립네다. 오분자기 씨뿌립네다. 구쟁이씨 뿌립수다. 보말씨 뿌립수다. 몽게씨, 해삼씨, 성게씨 ... 물토세기, 우미, 전각 ... 감태영 씨뿌립수다.(2003년 동김녕 잠수굿, 씨드림 중에서, 문순실 심방)

심방은 좁씨의 밀집도나 퍼진 범위를 살펴보면서 바다밭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해산물들이 길하고 흥한지를 예상한다. 씨점에 집중하는 잠수들은 심방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마음속으로 바다밭을 어렵짐작하게 된다. 씨점을 통해 심방이 이야기하는 바다밭의 상태는 잠수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잘 들읍서 예. 우미는 지금 바당에 골고루 씨 뿌려졌수다 우미가 예. 우미는 골고루 해신디 지금 먼 바당에 예. 물건 어신 바당이 어디냐 허은 한여 양. 한여광 석은빌레 사이에. 그디 비었고 예. 또 가수 알려 예. 가수 아래 물가는 바다 물가는 바당은 예. 흥끔 조심협씨. 그 바당은 가은 흥쓸 냐나 예. 경허고 어디냐 하은 이제 요 앞바당 예. 바로 요 앞바당에 이제사 어신 여가 생겼수가 어떻했수가? (잠수들이 서로 얘기를 함) 이 아래 먼 앞바당에? 굿바위도 예. 전에 어신 풀이 하영 남수다. 이 굿바위들이 양. 전이 어신 풀이 비자작허게 나은디 양. 이 저 구쟁이씨들은 흥끔 부족허우다. 구쟁이 씨가 예. 부족허고 오분제기씨도 쪼끔 부족허는디 예. 오분제기는 예. 어디가 많으나 하면은 이제사 이 앞바당에 어디 여에 지금 오분제기 불어먹는디 요 앞바당에 양. 건디 예. 올해는 막 한 바당은 양. 한 바당에꺼는 지금 바당이 무신 그물물 난 한 바당에꺼 잡아봄신가?(잠수들이 서로 소란스럽게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함) 거난 예. 먼바당에 물건은 이신디 자꾸자꾸 해녀들이 먹기전에 다른 사람이 먹어부는 거라마씨. 저 예. 서쪽 바당은 막 경계선에 도투지도 말앙 내봄서. 이제는 양 서로가 서로가 먹당보난 이젠 막 몰람수다. ... 바당이 지금 예. 흥년이라 흥년 바당이 흥년. 겐디 굿바위가 예. 지금 우미씨가 예. 어디를 막론하고 골고루 우미씨는. ... 툄씨도 비었던 해어도 지금이야 예. 조금씩 조금씩 전에 어신 풀들이 막 굿바위로 비지작허게 나명 예. 올해는 흥끔 바당은 흥년들쿠다 솔직히 말해서. 그자 바당에서 망사리 골르고 대나 그자 무사고만 헤여그네(“아이고 맞아 맞아”하고 잠수들이 맞장구를 친다) 올해 못 벌면 내년 벌고 이 물씨에 못 벌은 다음 물씨에 망사리 그득은는 거고 그치룩만 생각협서.(2003년

동김녕 잠수굿, 씨점 중에서, 문순실 심방)

씨드림과 씨점은 일종의 유감주술적인 행위<sup>8)</sup>라고 할 수 있으며, 잠수굿의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 3) 공동체의 유대강화

#### (1) 제물의 공동준비

잠수굿은 기본적으로 잠수회가 다같이 협동해서 일을 처리하고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굿하기 전날에 대부분 모여 제물마련을 위한 뱃물질을 하는데, 2004년에는 총 104명의 잠수들 중에 70여명이 참여해 강한 협동심을 보여줬다. 부정할 일을 당하거나 일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높은 참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어촌계장과 잠수회장이 중심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잠수굿에 공동으로 제물을 마련하는 모습은 김녕 큰당(본향당)의 본향당제와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큰당은 70년대 이후로 예전의 큰굿에서 '얕은제'로 변화하면서 개별 의례화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향당제에 찾아오는 단골들은 다 저마다 개인별로 제물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당에 찾아와 제물을 진설할 때도 다 저마다 개인별로 제단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9)</sup> 그러나 이에 비해 잠수굿에서는 아직도 공동으로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의 행사라는 사실을 잠수들에게 주시시키고 서로 연결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한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잠수굿의 구체적인 전승과정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난다. 굿을 하는 당일 잠수들이나 방문객들이 먹을 식사준비 마련에는 보통의 잠수들이 다들 모여 준비하므로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8) 현용준은 요왕맛이가 영신의례(迎神儀禮)이면서 기원유화의례(祈願有和儀禮)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씨드림·씨점은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인 것으로 규정했다. 즉 씨드림·씨점은 기원유화의례 내부에 있는 유감주술행위인 것이다. 조를 미역, 전복, 소라 등의 씨로 보고 그것을 바다에 뿌리는 것은 농경의례적 요소가 모태가 되어 그것이 어로의례에 적용된 것이겠지만, '類似는 類似를 낳는다'는 유감주술의 원리가 작용된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의례 속에서 행해진 사항이 실제의 생활에 실현될 것을 기대하여 행하는 의례가 유감주술의례이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349~361쪽.

9) 물론 본향당제 때 상단골이 간단하게나마 상을 차려가고, 마을 대표들의 부인들은 다른 주민들보다 더욱 정성을 드리고 제물에도 신경을 쓰고는 있다. 그러나 잠수굿처럼 마을 공동으로 도제상(都祭床)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의례화된 형태를 띠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젓상에 올리는 제물을 마련할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 잠수들은 굿의 제물 준비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드는 방법과 절차에다가 구체적인 제물의 형태나 개수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숙련된 경험과 특별한 정성이 요구되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굿당에 진설될 제물준비는 선정된 선배잠수와 대표 잠수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책임을 맡은 대표 잠수들이 굿에 쓰일 여러 가지 물건을 마련해 오면, 선배잠수들은 굿하기 전날 필요한 제물을 직접 만든다. 잠수회를 맡고 있는 회장과 총무나 동대표들은 일반 잠수들보다 제물마련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선배잠수들로부터 자문을 얻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잠수굿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굿을 맡은 문순실 심방이 그 어머니로부터 굿을 이어 받듯이, 잠수라는 단골들 또한 굿을 나름대로 세대를 넘어 이어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잠수들은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음으로써 굿을 하는 동안 선배잠수들에게 굿의 준비나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그런데 잠수회의 대표직은 마을의 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맡게 되기 때문에 잠수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굿의 준비나 진행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잠수굿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지·전승의 노후가 전승되고 있다.

또한 이 점은 잠수굿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심방과 단골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잠수굿처럼 공동체의 의례일 경우 단골집단 내부의 의례 계승과정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동안 제주의 굿에 대한 연구는 본풀이라는 구비문학적 관점과 심방의 의례진행 측면에서 다뤄진 적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굿을 존재하게 만든 원동력의 한 부분으로서 단골들의 실질적인 의례전수·계승방법은 꼭 파악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2) 분부사뒸

분부사뒸는 오전의 초감제와 오후의 요왕맞이 때에 모두 행해진다. 분부사뒸를 할 때는 어촌계장과 잠수회장과 일부의 잠수들이 모여 앉아 심방이 자신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심방은 한 손에 눈물수건을 잡고 말을 하고, 잠수들도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경청한다.

분부사뒸의 내용은 여러 가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때와 장소에 따라 조심하라거나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감수하는 잠수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또한 분부사

壼의 중요한 사항으로 잠수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지 말고 화합하라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촌계장과 잠수회장을 중심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지내야만 소원성취하고 아무 탈 없을 거라는 내용은 분부사壼의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 의해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 분부사壼은 신의 뜻을 전한다는 형식을 빌어서 강력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잠수들은 거부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는 공동체의 유대강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 혼술(어촌계장을 말함: 조사자 주)아, 원 다섯술(잠수회장을 말함: 조사자 주)아, 고 맏다. 조상들이 저상반 이상반 문을 잘 열려 상을 잘 받아 사노래 분무문안입고. 나 주순들 정성이 부족하여서인 무사 선물을 시킴광 정성이 그득허난 벌써 깨우치명 나 주순들랑 영현 일이 이시난 이걸랑 영영 막곡 저걸랑 정행 막으랜 해연 선물을 시켜 주난 문을 잘 열렴수다. 올해 열두 달 우미 물에나 바당물질 허는 주순이랑 맹심허라 (다 막아줍서). 집에서 조왕에서 아침밥 해영 먹영 물질허래 나올 때 아픈 주순이랑 그 날 물질을 허지 말랜 해영구나(아이고 다 막아줍서). 조상이 어디시리 해어도 구신은 쇠공쟁이 생인은 낭공쟁이난 무른발디 땅 끝으민 숨 쉬영 걸음 견국 견당 버치민 자동차도 타주만은 바당은 깊고 깊은 물 속이난 누계가 끝이 벗해영 그 물건 해영 망 사리에 놔 주지 않으곡 나 주순들 배운 기술은 바당이난 싸우멍 튼으멍이라도 태왁 하나 의지해영 이 바당 가민 비온 날도 부름만 아니 불민 들어가곡 안개 낀 날도 들어가 물 알드래 들어갈 땐 무스와 배도 이 물질해영 나가사 허주 나오랑 보민 놈의 망사리 섭섭허곡 이녁 망사린 고득으민 웃음이 지곡 나 망사리 섭섭허민 온 몸이 노곤허곡 아파가민 약 먹으멍 이 물질을 허민 백년이나 허멍 살멍 천년이나 허멍 살멍. 아이고 나 주순들아 사는 날까진 배운 기술이난 해여사 될 일이고(다 막아줍서) 사는 날까지 물질허민 목숨은 이 바당에 띄와 놓아근 아이구 선왕님 배탕 나갈땐 배에 의지허주만은 이녁만씩 떨어지민 태왁 하나 의지허여근(다 막아줍서) 숨이 꼬옥꼬옥 허민 진 한숨으로 태왁 의지 하나 해여 사는 나 주순들 돈은 벌민 얼마나 벌고 재산은 벌민 얼마나 벌리리야. 죽는날까지 고생을 허여사 될 일이고 물질하는 날까지 이일 해여사 될 일이란 나 주순들아 ... 너네 즈름 좇아근 원 다섯술아 작년 혼 해 백명 넘는 지쌍 요왕더레 디리칠 적마다 아이고 우리도 조상님이 어디서 모르느니 니 혼자 드리 치는 지를 받아근 나 주순 공히 주는 쑤을 그냥 먹영가리 해연 나 주순들아 무른발디 서 닌 니여 난 니여 싸워도 바당에서 조상을 도와준줄 니 공들인 덕으로 도왔구나. 올 혼 해도 도와주께 걱정허지 말라(다 막아줍서). ... 해상영업 편안시켜주마 나 주순들아(다 막아줍서). 원 혼 술아, 원 혼 술아, 그날 혼 들부터 이걸 밤 먹어도 성더레 못가는 나 주순아 올해 운이 좋으난 니가 해녀들 잘 데령 허라 조상에서 도와주곡(다 막아줍서) 다 이녁무음인디 혼 어멍 혼 아방 난 얘기도 다 성질이 틀리곡 싸움도 허는디

나가 김녕서 살명 이런거 저런거 다 알았던 해어도 잘 들어들 봅서. 옛날도 집이 망허젠 허민 불턱을 두 받디 앉싸가민 벌써 집안 망해가는 거 돈은 무신 필요이시고 재산은 무신 필요이십네까. 백명 넘는 해녀들 불턱에 올 때 웃음 웃음오곡 올라갈 때 곱이지쳐도 웃음 웃음 올라가사 허주 나 주순들아 닌 니여 난 니여 등을 지지 말라 등을 지지 말라. 아이고 너 혼 곳이 지어가민 니네들 조들아진다. 우리 조상들은 속이 업고 생각이 업느냐. 니네들 물숨 먹으멍 아이고 어떤 땐 천원돈 만원돈 모두멍 일년동안 살림살아그네 해여주는 거 받았가멍도(눈물을 수건으로 닦음) 나 주순들아(다 막아줍서) 하다 등을 지지 말아근 나가 잘헌 일이 이시나 나가 잘헌 일이 이시나 혼 발자국만 뉘우치라. 죽어볼민 땅 속가민 무각무각 썩어볼 몸천이여. 아이고 이 사람 아니보젠 독허게 돌아삿당이라도 뒷날 봐지민 말 그라지고 얼굴 보아진다. 나 주순들아 불턱에 아지는데 불턱을 혼받더래 모디칩서. 이 웃어른덜 이시난 옛날 영혼들도 오란 한숨을 쉬멍 옛날 동서김녕 해녀들도 영해당 모두쳐신디 아이고 유래어신 일이여 어멍헌 영 불턱에 두받디 앉싸근 나 주순들아 영 간장들 썩엄시니. 아이고 돈은 허민 이돈 지영 갈거가 가정 갈거가(눈물) 나 주순들아 사름 죽인 사름도 옥강 매어졌당 반성을 허민 다 배껴더래 집더래 보내주는게 사름이 아니가. 사름으로 못할 일이 어디시니. 나 주순들아 깊이 깊이 깨우치라 깊이 깊이 이행허라. 불도 조심허라 처서님이 이 앞이 차를 세워시난 잘 알아들어 이 차더래 돈복허게 실영 보내어 주민 쉰 다섯님아 올헌 이 곳 허영 조상덕에 큰 일허거들랑 맹년 나가들랑 고맙수덴 허영 회장직을 벗고대나 오랑 허랭 허국, 일흔 넷님 나 주순들도 너무나 고마운 주순들이여 쓸 혼되도 정성이여 밥 혼직도 정성이여 돌래떡 사발시루 하나도 정성이로구나. 니네덜 우로 넘는 일 이 어린 것들 송보젠 말양 불턱에 앉는 날까지 삼춘네건 나 조캐야 훌목심영 해염시라 허민 조상에서 물숨 먹을 일을 견어주마 견어주마 해연 분부문안 입고. 쉰 혼 술아 쉰 혼 살아 오늘로 조상님들 안티 다 고맙수덴 허라 고맙수덴 허라. 쉰 혼 술 어촌계장 이땅 요양 질칠때랑 백명 울은 해녀들 울어근 어촌계 간사까지 잘 해영오민 조상들은 정월둘에부터 해녀들안티 등을 지영 애들롭더러만은 어데 무쇠술에 화소역 먹는 나 주순들 배고파 밥 먹으면 배분 줄 아는 나 주순들 송을 보리야. 돌아상 반성허는 나 주순들아 백명 넘는 주순 거늘좌 주마 거늘좌 주마. 나 주순들아 불턱을 모디치라 모디치라 모디치라 후회될 일 이신디 후회될 일 이신디. 조상이 어디 이시랜 해어도 나 주순들아 웃대가 잘 못허민 주순에 대가 꿇어지는 법 당대에 부랑허고 당대에 죄가 지민 당대 주순에 망허고 흥허고 영허는 일 아니 보암시냐. 나 주순들아 우리 조상들도 니네안티 먹여가는 거 너무 미안허다 미안허다. 니네들 편안허영 망사리 그득 양식장에도 망사리 그득행 돈 허영 탕 웃음 웃어서 우리도 아이고 영 허난 나 주순들 일년 영도 큰긋허염구나 해영 우리도 지꺼정 춤추멍 오랑 먹영 갈 거난(다 막아줍서) 나 주순들아 불턱을 모디치라 모디치라.(2003년 동김녕 잠수굿, 요왕맞이의 분부사림 중에서, 문순실 심방)

(3) 서우젯소리<sup>10)</sup>

서우젯소리는 굿에서 자주 불리는 노래로, 잠수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은 누구나 그 가락에 익숙해져 있다. 굿판에서 서우젯소리는 대부분 가사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가사를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자유로움도 있다. 그런데 가사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불일 때라도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잠수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물질에 대한 애환과 살림살이의 고단함, 가정생활의 희노애락 등이 주로 표현되므로 서로의 삶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우젯소리는 '매기는 소리(선창)'와 '받는 소리(후창, 후렴)'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라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서우젯소리를 부를 때 초반에는 심방이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가사를 먼저 부르면 나중에 잠수들이 집단적으로 받아서 이어가고, 또 후반부에 개개의 잠수들이 가사를 만들어 부르다고 해도 나머지 잠수들이 받아준다.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는 서우젯소리의 특성은 다같이 놀 수 있는 대동판을 형성하기에는 아주 제격이다. 거기다가 춤까지 곁들여지므로 다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원래 잠수는 많은 민요를 창출해내고 전승시킨 집단이다. 동력선이 없던 시절 노를 저어 거친 바다를 헤치며 나아가 물질을 하던 삶이 민요 속에 깊이 녹아 있다. 따라서 잠수와 관련한 민요를 살펴보면 '흔뱃잠수'라고 불리던 잠수들의 인생과 공동체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4) 지드림

앞서 해상무사고 부분에서 언급한 지드림과 같은 것으로, 다만 이 경우는 잠수회와 마을 전체를 위해서 도지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5) 도액막음과 도산받음

도액막음과 도산받음도 개인적인 액막음이나 산받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범위를 넓혀 잠수회와 마을 전체를 위해 하는 것이다.

(6) 참가자의 범위와 부조, 답례

10) 서우젯소리에 대해서는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86 참고.

포제도 마찬가지로지만 잠수굿을 할 때 마을의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이 각각 부조를 하는데, 그 부조하는 이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잠수굿을 이미 하나의 마을의례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며, 물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마을사람들도 부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일례로 장사나 사업하는 주민들도 잠수굿에 참여해서 기원하면 혹시 번창하거나 액을 막을까 싶어서 부조를 하고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물론 김녕마을 내에서도 잠수굿에 참가하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주민들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제와 더불어 가장 큰 행사라고 말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자의 범위와 부조의 액수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부조는 결과적으로 잠수굿을 운영·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경제적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잠수굿의 전승에 일정 정도 기여한다. 따라서 잠수들도 부조에 대한 답례로 해산물(소라)을 각각 나눠주고 신경 써 준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한다. 또 부조하는 이들은 그 이름이 제장에 걸려 열명의 대상이 된다.

#### IV. 글을 마치며

전체적인 잠수굿 연구에 앞서 가장 기초적으로 파악해야 할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잠수굿의 제차와 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제차 속에는 잠수굿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잠수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축약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차의 구성과 그 역할에 대한 확인은 잠수굿을 둘러싼 공시적·통시적인 측면의 이해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 동김녕마을 잠수굿을 대상으로 해서 제차의 구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잠수굿의 제차는 굿의 내용상 크게 초감제, 요왕맞이, 지드림, 씨드림-씨점, 액막이, 배방선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주요 제차들은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들 제차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크게 해상무사고 기원과 해산물의 풍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이 있음을 밝혔다. 해상무사고 기원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잠수굿의 목적이 되고 있다. 또한 해산물의 풍요를 바라는 것은 바다를 '밭'으로 인식하는 잠수들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한편 물질이 개인의 행위를

서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당연히 잠수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  
타나며, 이는 더욱 범위를 넓혀 마을공동체의 유대 강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모습을 볼 수 있다.

수굿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제차들은 서로 교차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  
으며, 이뿐만 아니라 굿의 준비과정이나 부조에 대한 답례 등 잠수굿의 전후에  
행해지는 여러 과정들도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심방이 굿을 이끌어나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잠수  
단골들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굿의 제차구성도 중요한 일이  
다라서 잠수굿에서 실제 어느 제차의 어떤 부분이 잠수들과 공유하는지를 밝히  
은 단순히 제차의 분류와 나열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잠수굿의 진면목을  
준다.

론 잠수굿에 대한 연구는 제차와 그 역할을 분석하는 것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세일이나 장소·제물 등의 기본요소, 단골과 심방·마을공동체와의 관계, 전승  
의례의 반복성과 지속성 등 실로 다양한 분야를 짚어봄으로써 잠수굿의 총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잠수굿의 전승과정과 변화양상, 다른 마을 사례와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굿과의 비교 등이 더해진다면 실질적으로 잠수굿의  
와 의의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2.
-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김수남 외, 『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1983.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1993.
- 박수양, 『김녕리 향토지』, 명성종합인쇄, 1986.
-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986.
-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Ⅱ, 북제주군·제주대학교 박물관, 1998.
- 정루시아, 『제주도 당신앙 연구 : 구좌읍 김녕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9.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김녕리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 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9.
- 조성운·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한림화·김수남, 『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한길사, 1987.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와 한국 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2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0.
- 현용준, 『제주도 어촌마을에 관한 연구-1』, 『논문집』 제2편, 제주대학교, 1970.
- \_\_\_\_\_,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Ⅱ)』, 『국문학보』 3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0.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_\_\_\_\_,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 \_\_\_\_\_,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Abstract〉

## The Procedure and the Each Step's Role of Jamsugoot in the East Gymneoung Village

Kang So-Jeon  
Cheju National University

Quite a few cultures with regards to women-divers — called *Jamsu* in Jeju dialect — have passed down to the present. Of the cultures, women-divers' shamanism performance(*Jamsugoot* in Korean 잠수굿) is said a religious belief for women-divers themselves. The effort to perform *Jamsugoot* and to preserve it can be said a religious act that has a great attachment.

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understand the procedure of the *Jamsugoot*, and to analyse the meaning and the role of each step on *Jamsugoot*

To achieve the aims, this paper looked at the *Jamsugoot* exercised at the East Gymneoung village, which locates at Gujwa in North County of Jeju Island. The village was selected for the study because the original forms of *Jamsugoot*, women-divers' organization, and a chief shaman have been maintained.

The procedure of *Jamsugoot* are made up with various contents. Among them *chogamje*(초감제) and *yowangmaji*(요왕맞이) are very important. Each procedure of *Jamsugoot* has three meanings and roles. And these are represented over again through all the course of *Jamsugoot*.

Namely, the *Jamsugoot* represents wishes for no accident in sea, for catching a plenty of fishery products, and for solidarity of community.

Key words : women-divers' shamanism performance(*Jamsugoot*), wishes for no accident in sea, catching a plenty of fishery products, solidarity of community.

## 요 약

제주에서 잠수들이 만들어내고 전승시켜온 여러 문화유산 중에, 잠수굿은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잠수굿은 잠수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잠수굿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으로 잠수굿의 제차(祭次)와 그 역할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제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심방과 잠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차에서 어떻게 공유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잠수굿의 총체적 연구를 위한 밑바탕이 된다.

이를 위해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의 동김녕마을에서 행해지는 잠수굿을 대상으로 삼았다. 동김녕마을에는 잠수라는 단골조직과 매킨심방이 존재하고 있으며, 잠수굿이 매해마다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동김녕마을 잠수굿은 비교적 나름대로 전래적인 원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김녕의 사례를 통해 제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우선 잠수굿의 제차는 굿의 내용상 크게 초감제, 요왕맞이, 지드림, 씨드림-씨점, 액막이, 배방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제차들은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 중에서 초감제와 요왕맞이는 가장 중심적인 제차로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한편 이런 제차들은 잠수굿 속에서 해상무사고 기원과 해산물의 풍요, 공동체의 유대 강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차뿐만 아니라 굿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보이는 것이다.

해상무사고에 대한 기원은 잠수굿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또한 해산물의 풍요와 관련해서는 잠수굿의 유감주술적인 면모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단순히 잠수들의 의례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까지 함으로써 잠수굿의 외연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